

2023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

자료제공_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올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연 매출 규모가 재작년의 약47% 수준, 불황기였던 2019년 수준인 약 1535억원에 그쳤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이사장 김영석)와 아트프라이스(대표 고윤정)가 2023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연말 결산을 발표했다.

국내 미술품 경매사 **8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이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아이옥션, 라이즈아트, 에이옥션, 칸옥션)에서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의 분석결과 낙찰총액은 약 **153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이는 각 국내 경매사(해외법인 포함)의 순수미술품 외 모든 항목별 낙찰 결과를 합산한 것이며, 서울옥션 제로베이스는 제외됐고, 이브닝 경매는 포함된 것이다. 또한 에이옥션 온라인(12/27)과 아이옥션 온라인(12/29)은 집계 일정상 제외되었다.

2023년 미술품 경매 낙찰총액인 **약 1535억원**은 '2022년 약2360억원, 2021년 약3294억원, 2020년 약 1153억원, 2019년 약1565억원' 등 지난 5년간 비교할 때 최저치에 가까운 낮은 규모이며, 현재의 미술 시장 경기가 얼마나 얼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집계결과 '**총출품작은 27,814점 · 낙찰작 14,238점 · 낙찰률 : 51.2%**'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6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가장 낮은 낙찰률이었으며, 낙찰작품 역시 가장 적은 수치였다. (2022 총출품작 30,985점 낙찰 18,468점 낙찰률 59.6% / 2021 총출품작 32,955점 낙찰 22,235점 낙찰률 67.47% / 2020 총출품작 30,276점 낙찰 18,349점 낙찰률 60.61% / 2019 총출품작 25,962점 낙찰 17,279점 낙찰률 66.55%)

또한 낙찰총액은 이우환 화백이 약 134억 6555만원(낙찰률 약 59%)으로 1위를 되찾으며,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 낙찰총액 1위는 2022 쿠사마 야요이 약 276억7436만원, 2012 이우환 약 394억 8770만원, 2020 이우환 약 149억7000만원, 2019 김환기 약 249억6000만원)

반면, 단일 작품 최고가 기록은 절대적 강자였던 쿠사마 야요이를 누르고 조선백자인 백자청화오조통문화 70억원이 차지해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최고 낙찰가 1위는 2022 쿠사마 야요이 약 64억2000만원, 2021 쿠사마 야요이 약 54억5000만원, 2020 쿠사마 야요이 약 27억8800만원, 2019 르네 마그리트 약 72억4750만원) 특히 최고 낙찰가 1~3위가 조선시대 작품이며, 1위와 3위가 조선백자라는 점이 특별하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김영석 감정위원장은 "올해 미술시장은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경기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이고 적어도 내년까진 미술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진 못할 것"이라며, "과연 지속되는 불황의 그늘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총체적인 점검과 각 구성원의 협력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결산에는 국내 경매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①**경매사별 총 거래량 및 낙찰률**, ②**경매사별 비중도**, ③**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가 30순위**, ④**낙찰총액 30순위 작가 비교**, ⑤**장르별 비중도**" 등이다. 보다 자세한 항목별 안내는 다음과 같다.

1. 경매사별 총 거래량 및 낙찰률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K옥션	58,134,460,000	9,795	3,914	39.96
서울옥션	54,439,170,000	6,052	3,441	56.86
마이아트옥션	29,528,400,000	1,097	730	66.55
아이옥션	5,125,120,000	3,864	2,553	66.07
라이즈아트	2,274,810,000	1,804	988	54.77
아트데이옥션	1,172,840,000	2,025	676	33.38
칸옥션	1,664,400,000	739	424	57.37
에이옥션	1,241,320,000	2,438	1,512	62.02
총합계	153,580,520,000	27,814	14,238	51.19

자료제공_(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올해의 경매사별 낙찰총액 1순위는 K옥션이 약 581억원을 기록했으며, 약 544억원의 서울옥션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연속 2년을 앞섰던 서울옥션이 1위를 내줬지만, 연간 평균 낙찰률에선 56.9%로 K옥션의 40%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약 9800점을 출품해 약 3900여점 낙찰한 기록으로 전체 평균 낙찰률 51%와도 큰 차이를 보인 결과이다. 그만큼 메이저 경매사의 고전이 미술 경매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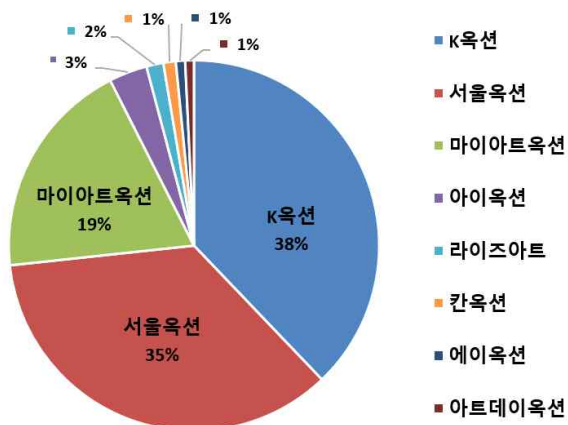
※ 아래 표는 지난 5년간 경매사별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K 옥션	2023 = 58,134,460,000	9,795	3,914	39.96
	2022 = 83,515,650,000	10,456	6,133	58.66
	2021 = 136,008,527,000	14,157	8,273	58.44
	2020 = 51,738,899,000	14,043	7,352	52.35
	2019 = 57,409,564,000	8,758	5,842	66.70
서울옥션	2023 = 54,439,170,000	6,052	3,441	56.86
	2022 = 119,170,171,882	6,250	4,242	67.87
	2021 = 166,648,733,580	6,957	5,544	79.69
	2020 = 43,414,099,442	4,230	2,929	69.27
	2019 = 82,285,770,520	3,800	2,839	74.71
마이아트옥션	2023 = 29,528,400,000	1,097	730	66.55
	2022 = 13,241,678,109	989	618	62.49
	2021 = 9,274,636,483	1,036	682	65.83
	2020 = 7,595,250,000	679	443	65.24
	2019 = 4,938,910,000	566	348	61.48
아이옥션	2023 = 5,125,120,000	3,864	2,553	66.07
	2022 = 4,444,190,000	4,326	3,015	69.69
	2021 = 4,592,120,000	3,590	2,728	75.99
	2020 = 3,949,460,000	3,783	2,870	75.87
	2019 = 3,805,420,000	4,257	2,764	64.93
라이즈아트	2023 = 2,274,810,000	1,804	988	54.77

	2022 = 3,729,270,000	2,163	1,229	56.82
	2023 = 1,172,840,000	2,025	676	33.38
아트데이옥션	2022 = 8,672,640,000	2,417	1,240	51.3
	2021 = 8,731,630,000	3,030	1,976	65.21
	2020 = 5,120,720,000	1,890	1,072	56.72
	2019 = 3,238,490,000	1,916	1,238	64.61
	2023 = 1,664,400,000	739	424	57.37
칸옥션	2022 = 1,336,350,000	532	339	63.72
	2021 = 1,232,400,000	532	343	64.47
	2020 = 673,600,000	456	266	58.33
	2019 = 943,450,000	502	293	58.37
에이옥션	2023 = 1,241,320,000	2,438	1,512	62.02
	2022 = 1,754,680,000	2,167	1,532	70.7
	2021 = 2,888,210,000	3,367	2,605	77.37
	2020 = 2,718,630,000	4,570	3,249	71.09
총합계	2019 = 3,689,450,000	5,156	3,682	71.41
	2023 = 153,580,520,000	27,814	14,238	51.19
	2022 = 235,990,029,991	30,985	18,468	59.6
	2021 = 329,434,687,063	32,955	22,235	67.47
	2020 = 115,291,088,442	30,276	18,349	60.61
	2019 = 156,491,974,520	25,962	17,279	66.55

자료제공_(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2. 2023년 경매사별 비중도



경매사별 상위 5순위 비중도를 살펴보면, 'K옥션 38% → 서울옥션 35% → 마이아트옥션 19% → 아트데이옥션 3% → 에이옥션 2%'순이었다.

상위 2순위 메이저 경매사 합산이 73%를 기록해, 80~90%였던 예년에 비해 비중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 큰 변화이다.

이는 전체 최고 낙찰가 70억원 작품이 고미술을 전문으로 유통해온 마이아트옥션에서 판매한 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3. 2023년 국내 미술품경매 낙찰가격 30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규격(cm)	재료	제작 년도	낙찰가	옥션사	날짜
1	조선백자	백자청화오조롱문호	19.5×20×56(h)	도자		7,000,000,000	마이아트 옥션	2023.05.25
2	김홍도, 임희지	죽하맹호도	91×34	비단에 수묵채색		3,900,000,000	마이아트 옥션	2023.12.07
3	조선백자	백자대호	42.3×47.5(h)	도자	조선시 대	3,400,000,000	서울옥션	2023.10.24
4	쿠사마 야요이	Infinity-Nets Green(TTZO)	194×130.3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5	2,500,000,000	서울옥션 홍콩	2023.03.28
5	이우환	With Winds	196.5×290.5	oil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1990	2,100,000,000	서울옥션	2023.07.25

6	안중근	용호지용세기작인묘지태	135×34	ink on paper	1910	1,950,000,000	서울옥션	2023.12.19
7	조선백자	백자대호	22×16.5×46.5(h)	도자		1,900,000,000	마이아트 옥션	2023.08.31
8	김환기	북서풍 30-VIII-65	177.5×127	캔버스에 유채	1965	1,500,000,000	K 옥션	2023.01.18
9	이우환	조용	145.5×112.1(4ea)	캔버스에 안료	2000	1,300,000,000	K 옥션	2023.03.29
10	쿠사마 야요이	Watermelon	38×45.5	캔버스에 아크릴릭	1989	1,300,000,000	K 옥션	2023.07.26
11	이우환	바람과 함께	181.8×227.3	캔버스에 안료	1987	1,200,000,000	K 옥션	2023.11.22
12	유영국	Work	162×133	캔버스에 유채	1964	1,070,000,000	서울옥션 홍콩	2023.03.28
13	박서보	묘법 No. 48-75-77	130.3×193.9	마포에 유채, 연필	1975~1977	1,060,000,000	K 옥션	2023.11.22
14	조선백자	백자사각병	4×10.7×25.5(h)	도자		1,040,000,000	마이아트 옥션	2023.03.09
15	조선백자	분청사기 철화시명병 외 3ea	9.2×10×33(h) 외	도자		1,030,000,000	마이아트 옥션	2023.08.31
16	유영국	Work	130.3×193.9	캔버스에 유채	1989	1,000,000,000	K 옥션	2023.06.28
17	조선백자	백자청화동화양각장생문 필통	10.2×10.4×11.5(h)	도자		1,000,000,000	마이아트 옥션	2023.08.31
18	이우환	Dialogue	226.9×181.8	oil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2008~2014	900,000,000	서울옥션	2023.06.27
19	아야코 룩카쿠	Untitled	140×180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8	900,000,000	K 옥션	2023.09.20
20	김환기	무제	61.4×91.8	캔버스에 유채, 혼합재료	1960년대 중반	800,000,000	서울옥션	2023.04.25
21	박서보	묘법 No.213-85	130.3×162.2	코튼에 유채, 연필	1985	775,000,000	K 옥션	2023.12.20
22	김환기	4-VI-69 #65	178×127	코튼에 유채	1969	750,000,000	K 옥션	2023.12.20
23	김정희	시우란	22.8×85	종이에 수묵		740,000,000	마이아트 옥션	2023.12.07
24	이우환	선으로부터 No.77072	72.7×90.9	캔버스에 안료	1977	700,000,000	K 옥션	2023.01.18
25	앤디워홀	Dollar Sign	25.3×20	synthetic polymer and silkscreen inks on canvas	1982	660,000,000	서울옥션	2023.12.19
26	쿠사마 야요이	Pumpkin	15.8×22.7	캔버스에 아크릴릭	1991	650,000,000	K 옥션	2023.08.23
27	조지콘도	The Departure	91.4×91.4	캔버스에 유채	2004	650,000,000	K 옥션	2023.08.23
28	박서보	묘법 No.080704	165.5×260	캔버스 위 한지에 혼합재료	2008	650,000,000	서울옥션	2023.08.29
29	이우환	조용	181.8×227.3	캔버스에 안료	2004	650,000,000	K 옥션	2023.10.25
30	박서보	묘법 No.101104	180×300	캔버스 위 한지에 혼합재료	2010	640,000,000	K 옥션	2023.12.20

자료제공_(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낙찰가격 상위 30순위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작가는 변함없이 6점을 등재한 이우환이 차지했다. 하지만 더욱 주목되는 대목은 이전에 약세를 보인 조선시대 작품들이 8점을 올려 크게 활약했다는 점이다. 이중 조선백자는 6점이었으며, 상위 15순위엔 5점, 10순위 안엔 3점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소 앞선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 전통미술의 선전 여부가 미술시장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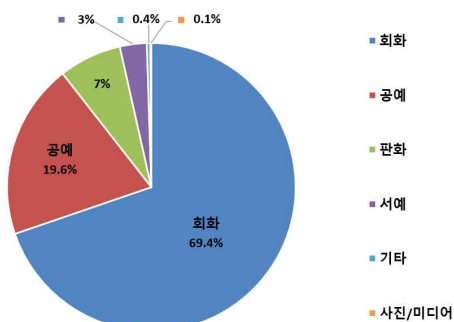
4. 2023년 낙찰총액 30순위 작가 비교

순위	작가명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1	이우환	13,465,550,000	238	140	58.82
2	박서보	11,103,980,000	212	119	56.13
3	쿠사마야요이	6,302,990,000	95	56	58.95
4	김환기	6,253,170,000	106	69	65.09
5	유영국	4,323,900,000	29	26	89.65
6	이영배	3,937,400,000	117	79	67.52
7	김창열	3,435,980,000	172	97	56.39
8	박수근	2,827,720,000	22	11	50.00
9	아야코룩카쿠	2,548,850,000	104	56	53.85
10	앤디워홀	2,230,950,000	25	17	68.00
11	윤형근	2,210,000,000	35	25	71.43
12	장욱진	2,030,020,000	64	47	73.44
13	안중근	1,950,000,000	1	1	100.00
14	김정희	1,650,860,000	56	46	82.14
15	이건용	1,623,200,000	125	54	43.20
16	조지콘도	1,400,000,000	4	3	75.00
17	하종현	1,372,000,000	17	11	64.70
18	김홍도	1,195,000,000	9	6	66.67
19	데이비드호크니	1,161,200,000	40	24	60.00
20	천경자	1,040,420,000	73	44	60.27
21	최영욱	1,024,850,000	57	51	89.47
22	정상화	1,008,300,000	44	16	36.36
23	이강소	969,300,000	27	17	62.96
24	우국원	858,600,000	18	11	61.11
25	도상봉	857,000,000	20	7	35.00
26	정영주	842,300,000	20	19	95.00
27	김종학	787,320,000	80	44	55.00
28	전광영	776,800,000	36	21	58.33
29	데미안허스트	723,800,000	49	26	53.06
30	이왈종	707,950,000	183	87	47.54

자료제공_(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낙찰총액 30순위 작가 중 생존작가는 12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10월에 작고한 박서보 화백까지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비중이다. 또한 단색화 위주의 작가들 비율이 낮아지고, 다양한 성향의 작가와 작품이 고르게 편성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단색화 열풍에 의존했던 시장이 이젠 다양화된 수요자의 기호가 반영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5. 장르별 비중도



장르별 비중에 있어선 약 70%를 차지한 회화 부문이 큰 비중이었으며, 판화까지 합치면 약 77%에 가까웠다.